

“생명력 넘치는 ‘물의 흐름’ 통해 굴곡진 우리네 역사 그려냈죠”

‘송필용: 곧은 소리’展...4월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80년 오월 광주 담은 초기작부터 역사와 민중 삶 투영한 근작까지 시대정신 담은 60여점 작품 선봬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물’로 형상화하고 있는 송필용 작가. 그는 민주화 정신을 기억하면서도 우리 전통과 사회 변화에 맞춰 자신의 조형 언어를 꾸준히 탐구해왔다.

2023 오지호미술상 본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송필용 작가의 예술적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4월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5, 6 전시관에서 열리는 ‘송필용: 곧은 소리’ 전시다.

오지호미술상은 역사에 대한 뚜렷한 시대 정신을 갖고 우리 땅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작업 소재로 다뤄온 작가에게 시립미술관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전시는 1부 ‘지금 여기는 없지만’, 2부 ‘내 산하에 서다’, 3부 ‘빛이 된 물’ 총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1980년 오월 광주를 담은 초기 작품부터 역사와 민중의 삶을 물(水)로 치환해 제작한 근작까지 총 60여 점을 선보인다.

1부에선 1980년대 전라도 땅과 민중의 모습,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형상화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 근현대기 민중의 수난사를 담아낸 작품들이다. 비운의 역사를 겪은 장소, 대립과 저항을 통해 극복해나가는 민중의 모습을 그려냈다.

1987년작 ‘땅의 역사’는 백아산과 황토현



‘땅의 역사’

의 동학농민혁명을 거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전라도민이 겪은 비운의 역사를 집대성한 회화다. 작품 근경에는 전남대 당산나무와 화순 운주사 와불·이형탑 등이 그려져 있고, 마지막 장면에선 도시의 화려한 야경 위 붉은 기방을 맨 어린이가 있다. 민중이 겪은 애환의 역사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작가의 바람을 엿볼 수 있다.

2부는 1980년대 담양 누정에서 만난 선비의 저항정신과 금강산 폭포의 경이로운 모습을 마주하면서 발견한 ‘물의 사유’를 구체화한 작품을 모아놨다.

‘역사가 흐르는 강’은 남도 자연의 색채와 전통 수목화 기법을 활용해 선비 정신이 깃



‘역사의 흐름’ 연작 앞에 선 송필용 작가



‘역사의 섬-5-18민주광장’

든 담양 전경을 그려낸 작품으로, 무등산 원효계곡부터 마을의 누정까지 긴 물줄기가 굽이굽이 이어져 있다.

김수영 시인의 시 ‘폭포’를 떠올리며 물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한 시점에 그린 작품 ‘구



‘역사가 흐르는 강’

룡폭포’도 만나볼 수 있다.

3부 ‘빛이 된 물’에서는 재현을 넘어 역사와 인간의 생명력·상처·치유·정화·희망 등 비가시적인 관념을 ‘흐르는 물’ 형상으로 치환해 제작한 작품을 소개한다.

빛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력한 물의 흐



‘곧은소리는 곧은소리이다’

름을 만들듯이, 개개인의 역사적 사명이 모여 올바른 역사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은 ‘역사의 흐름’ 연작은 보기만 해도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햇빛에 빛나는 물줄기를 흰색으로 표현했다. 역사 속 상처는 시공간을 흘러가며 정화되고, 정화된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공명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송필용 작가는 “흐르는 물의 형상과 그 속성을 통해 사람들이 지닌 상처를 치유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았다”며 “굴곡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땅의 변화, 물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그 겨울에도 봄은 피었다’ 강남구 초대전, ACC디자인호텔



‘공간-생명력’

정겨운 자연의 표정을 담아내고 있는 강남구 작가가 새해를 맞아 초대전을 연다.

강남구 작가 초대전 ‘그 겨울에도 봄은 피었다’가 다음달 27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작가의 그림은 화려한 봄날의 흐드러진 풍경을 묘사해낸다. 후경은 몽환적으로 처리해 작품의 입체감을 살렸다. ‘매화’는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세월의 풍파와 연륜이 느껴지는 거친 나무 표피와 꽃이 선사하는 향기와 부드러움, 그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묻어난다.

작가는 “마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같이 빛나고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들은 재현과 관념적 풍경을 익숙하게 떠올리며 생경하고도 묘한 화면을 자아낸다”며 “수많은 사념처럼 캔버스에 한송이 한송이 울린 작품을 통해 감동과 인생의 의미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시립미술관, 제1기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성료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도슨트가 돼 미술관 전시를 소개하는 ‘광주시립미술관 제1기 어린이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도슨트 양성교육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도슨트 교육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슨트 참여 어린이와 관람객 입

장의 어린이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미술작품 감상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도슨트의 역할과 직업특성 ▲전시작품 이야기와 관람 태도 ▲전시해설 스크립트 작성 및 스피치 ▲도슨트 현장 리허설 및 참여 등 기초이론 교육과 현장학습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미술관에서 활동하는 도슨트로부터 현장 실습교육도 받았다.

1기 프로그램을 수료한 어린이는 앞으로 광주시립미술관 도슨트 프로그램 현장에서 활동하며, 어린이 투어 영상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의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은 참여 어린이의 미술 이해와 전달 능력 향상을 도울 것”이라며 “또래친구와 미술 이야기를 통해 학교 밖에서 사회적 소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